

##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 나타난 ‘사랑의 윤리’

이승구\*

### 논문 초록

이 논문에서 나는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 (Works of Love)에서 기독교적 사랑의 윤리로 제시된 기독교 윤리는 그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로, 기독교적 사랑의 윤리는 기독교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사랑의 윤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실천될 수 있다. 둘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그 중간 언어로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적 원천이요, ‘이웃 사랑’은 이 사랑의 외적 표현이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 사랑의 내적인 표현인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랑의 윤리가 사회적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는 일이 추후 탐구의 과제로 남았다.

핵심 주제어: 사랑, 아가페 사랑, 중간 언어로서의 하나님, 사랑의 윤리, 이웃, 키에르케고어, 레비나스

---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적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사랑의 윤리
- III. 하나님을 중간 언어로 하는 사랑의 윤리
- IV. 결론

## I. 들어가는 말

이 소논문에서 나는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 (*Works of Love*)에서 기독교적 사랑의 윤리로 제시된 기독교 윤리는 그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sup>1)</sup> 이것은 다음 세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로, 기독교적 사랑의 윤리는 기독교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둘째로, 기독교적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그 중간 언어로 한다.

이 논의의 과정에서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단순히 윤리적 영역에 있는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해 사이의 분명한 대조가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과 단지 윤리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윤리 이해를 가졌다고 하기 어려우며, 또한 기독교적 사랑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적 관계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바와 같이,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소논문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는 책을 먼저 간단히 이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키에르

---

1) 기독교 윤리를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사랑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한 또 다른 신학자로 또 다른 루터파 신학자인 안더스 니그렌(Anders Nygren)을 들 수 있다. 그는 역시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hristian ethics are rooted in Christian faith)(1932: 65).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윤리와 다른 윤리의 근본적 차이의 토대가 된다고 한다 (Nygren, 1932: 45). Cf. Walker(1972: 12, 142).

케고어는 그가 1847년에 낸 『사랑의 역사』(Works of Love)에서 그는 “사랑의 역사”라는 용어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sup>2)</sup> 이 책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저작이다. 이 책의 부제가 이를 아주 분명히 한다: “강화의 형태로 이루어진 몇 가지 기독교적 성찰들”(Some Christian Reflections in the Form of Discourses). 이 부제에 어울리게 이 책에서 그는 신약 성경의 몇 구절들에 대한 일종의 강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자면, 눅 6:44; 마 22:39; 롬 13:8, 10, 딤후 1:5; 요 일 4:20; 고전 8:1, 13:5, 7, 13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크록살(Croxall)이 잘 말하고 있듯이, “신약의 윤리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취하여지고 있다.”<sup>3)</sup>

이 윤리는 기독교적 사랑의 윤리로 여겨지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책에서 자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한다.(WL, 8=WLS, 7) 그는 때때로 아주 직접적으로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말도 한다.(WL, 8, 21, 47, 49, 50, et passim) 그러므로 이 책은 사

2) 한 곳에서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적 도덕성’(Christian morality)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그것만이 ‘참된 도덕성’(the true morality)이라고 한다. Søren Kierkegaard, *Works of Love*(1994), 51. (이하에서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은 WL로 약하고 본문 가운데 삽입하기로 한다. 스웬슨의 옛 번역본(David F. Swenson and Lillian Marvin Swens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6)은 WLS로 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WL, 51=WLS, 42 식으로 인용될 것이다.)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어가 기독교 윤리를 잘 제시하고 있다는 다른 논의들로 다음을 보라: David Steere의 서문, in WLS, vii; Malantschuk(1971: 325f, 361f.); Arbaugh and Arbaugh (1967: 258); Stendahl (1976: 183); Elrod (1981: 284); Utterback (1975: 240); 그리고 Mullen (1981: 149, 155).

3) Croxall (1956: 220): “New Testament ethics are taken seriously and literally.” 크록살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키에르케고어는 그의 책의 첫 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회기적인 글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신의 사상을 토대 놓고 있다.” Bonifazi (1950: 116)도 같은 견해를 말하고 있다.

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중립적인 성찰이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서 논의된 것이 사랑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는 사랑이 [참으로] 무엇 인지를 드러내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주장한다.(WL, 53=WLS, 44)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에게는 “기독교적 의미에서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기독교적 사랑은 본질적 사랑이다.”<sup>4)</sup>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것을 바꾸고, 사랑도 전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WL, 147=WLS, 119) 따라서 기독교적 사랑만이 참된 사랑, 신적으로 이해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최고선인 사랑으로 여겨진다.<sup>5)</sup>

이와 같이 『사랑의 역사』(*Works of Love*)의 성격을 살폈으니, 이제 이 소논문의 주된 논의, 즉 사랑의 역사로서의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명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로 하자. 앞에서 시사 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사랑의 역사』에 표현된 사랑의 윤리는 기독교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2)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을 중간 언어로 한다.

4) WL, 147=WLS, 119. 또한 WL, 143, 145=WLS, 116, 118. Cf. Walsh (1988: 235f.); Utterback (1975: 91, 213, 251); Andic (1999: 16)도 보라.

5) 바로 이런 의미에서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적 강화』(*Christian Discours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 없이 있다는 것은 힘없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강하다는 것은 힘없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사랑한다는 것, 즉 사랑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Chr. D, 130) 하나님 없이 있는 참된 사랑이 없다는 이 강한 주장을 주목하여 보라. 바로 이것이 『사랑의 역사』의 근본적 주제이기도 한 것이다.

## II. 기독교적 사랑의 반응으로서의 사랑의 윤리

기독교적 사랑이 “기독교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이 요점은 이 책의 주된 논의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에서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책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이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이 책의 도입부에 있는 “기도”에 나타나 있다.(WL, 3f.=WLS, 4) 키에르케고어는 의도적으로 이 기도를 앞에 배치시켜 놓은 듯하다. 왜냐하면, 폴 몰러가 잘 말한 바와 같이, “기도가 없는 사랑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Mueller (1993: 8)). 이 기도의 이렇듯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내용을 여기서 온전히 다 분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의 몇 가지 특성만을 언급해 보려고 한다.<sup>6)</sup>

첫째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은(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주체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sup>7)</sup> 키에르케고어는 “우리가 당신님을 잊어버리고서는 어떻게 사랑에 대해 바르게 말할 수 있겠사옵나이까?”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당신님”[성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하기 위해 당신님을 친히 주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속자이신 당신님”[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영이신 당신님”[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키에르케고어는 이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6) 이 기도에 대한 다른 좋은 분석으로 Ferreira (2001: 17-21)을 보라.

7) 이 점에 대한 같은 견해로 Hartshorne (1990: 47)을 보라: “명확히 삼위일체적 형태로 특징 지워지는 이 기도는 키에르케고어가 깊이 있게 지니고 있는 기독교적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This prayer, in characteristically trinitarian form, reveals Kierkegaard's profoundly held Christian conviction.)

이다. 그러므로,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거나 “사랑이신 당신님”이라고 할 때, 이 표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개념이나 사랑의 원리로나 추상적인 사랑 자체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키에르케고어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어 우리와 대화하시며 우리가 당신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다.<sup>8)</sup> 그리고 셋째로, 오직 이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우리는 사랑과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시고, 신자들이 하여금 자신들이 사랑받은 것과 같이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만이 기독교적 사랑의 근본적 전제이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 묘사된 것도 이 특별한 사랑, 즉 니그렌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십자가의 아가페”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Nygren (1932: 76), et passim).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는 당신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만 사랑하는 이인 것입니다”(“so the lover is only what he is through being in Thee”)와 같은 표현도 그저 그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구원 행동에서 당신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이해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그로부터 모든 사랑이 나오는” 사랑의 원천으로 묘사되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써 이 사랑을 결정적으로 표현하신 분으로 묘사되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제공하신 사랑의 희생을 상기시키시고 알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sup>9)</sup> 삼위일체

8) Cf. Kierkegaard (1965: 277=Pap. XI 2 A 175); Kierkegaard (1967-1978), (이하에서 JP로 약함) II, 1437(Pap. XI 1 A 35); JP, II, 1452(Pap. XI 2 A 175).

9) 『자아 성찰을 위하여』(For Self-Examination)에서도 키에르케고어는 “성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이고 구원론적인 이해로부터 키에르케고어는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해야만 하는 기독교적 사랑의 성격을 이끌어 낸다. 즉, 첫째로, 우리가 사랑받은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성령님의 사역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랑은 “공로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 앞에 나오는 이 기도는 이 책 전체에서 키에르케고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요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삼위일체적 이해는 이것이 기도이고, 그렇기에 19세기 초반에 덴마크에 사는 이들의 전통적인 기도 표현에 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일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삼위일체론적이고 구원론적인 사랑 이해가 이 기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물론 이 책에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말한 바 있다. 이 책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삼위일체에 대한 전통적이고 정통적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대부분의 저작에 모두 적용되는 말이다.<sup>10)</sup> 그는 심지어 존재론적 삼위일체(the ontological Trinity)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리 바레트 (Lee C. Barrett, III)가 “하나님은 우주의 존재와 관련 없이도 자기 자신

령남도 사랑 [*Kjærlighed*]을 가져다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다(FSE, 83).

10) 이 주제에 대한 비슷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Sørensen (1962: 223-24); Smit (1965: 96f.); Heineken (1956: 19); Lønning (1978: 166f.); Sponheim (1975: 207f.); 그리고 Bonifazi, (1950: 80f., 93). 키에르케고어의 글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진술로는 다음을 보라: JP, II, 1919(Pap. X 5 A 44); JP, II, 1285(Pap. X 3 A 200); JP, II, 1432, 1548(Pap. X 5 A 23, X 3 A 394); JP, III, 3380(Pap. II A 538), 3445(Pap. X 2 A 344); JP, IV, 4462(Pap. X 3 A 394); JP, IV, 6792(X 4 A 472), 6832(Pap. X 5 A 43).

의 자아 안에서 사랑이다”고 말할 때(Barrett, 1999: 146), 그는 아주 옳은 것이다. 키에르케고어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한 곳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아주 명확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이시고(one with the Father),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사랑의 교통을 나누고 계신다……. 그는 참으로 신 인(the God-man)이시고, 그런 점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과는 영원히 다르시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간적인 면에서 시험을 당하실 정도로 참된 인간이었다.(WL, 155=WLS, 125)

이 묘사는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묘사이다. 그러나 이 성육신하신 분은 성부와 성령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과 그는 동시에 참 하나님(*vere Deus*)이시요, 참 인간(*vere homo*)이신 신인(the God-man)이시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이 책 전체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육신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사건(즉, 구원적 사랑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키에르케고어는 여러 책에서 자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구속과 관련 하여 처음 오셨던 분은 하나님이다.”<sup>11)</sup>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앞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실존을 유지시키는 사랑이다”(“the love that sustains all existence.”)(WL, 301) 그러므로, “만일에 잠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

11) WL, 336=WLS, 272. 또한 다음도 보라: WL, 101f.=WLS, 83; Chr. D, 282; JP, III, 2402(Pap. IV A 183); JP, II, 1412, 2407(Pap. X3 A 421, VIII 1 A 89); JP, III, 3394(Pap. IV B 171).



이[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다면, 모든 것은 혼동에 빠질 것이다.”(WL, 301)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는 동시에 우리의 교사(WL, 121=WLS, 99)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원형(prototype)이다.<sup>12)</sup>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책에서 강조된 것은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표현된 사랑이라는 것이다.<sup>13)</sup>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배운다. 사실, 이 책은 그리스도만이 참된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신적으로 이해된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에 계서만 배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what love is, divinely understood, this the best of men could learn only from Him [Christ].”)<sup>14)</sup>

그러면 이제부터 키에르케고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는 “사랑에 대한 신적 개념으로 사랑하셨다”(“loved by virtue of the divine conception of what love is.”)는 말을 해야 한다.(WL, 109f.=WLS, 90) 이 주장으로 키에르케고어는 사랑에 대한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와 사랑에 대한 신적인 이해를 대조하며, 그 차이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키에르케고어는 그가 인간적 사랑, 또는 이 세상적 사랑, 또는 세속적 사랑 (또는 사랑에

12) WL, 264, 288=WLS, 214, 233. See also FSE, 67; Chr. D., 41-43, 75f., 77, 85, 122; JFY, 147, 159, 160, 169, 191, 198f., 201, 207, 209; JP, II, 1884(Pap. X 3 A 615). 또한 Nygren (1932: 65)도 보라.

13) 비슷한 관찰로 Croxall (1956: 223)도 보라. 『자아 성찰을 위하여』(For Self-Examination)에서도 키에르케고어는 사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들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에 따라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고난 받고, 모든 것을 건디고, 이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FSE, 67).

14) WLS, 90. 또한 WLS, 139도 보라. 자끄 콜레토 이 책을 분명히 관찰하여 지적하고 있다(Colette, 1968: 41).

대한 이해)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가 사랑에 대한 신적 이해 또는 영적인 사랑, 또는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고 부르는 것을 철저히 대조시킨다. 그 둘 사이의 갈등을 명확히 관찰하고 제시하는 것이다.<sup>15)</sup>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는] 실제로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랑, 즉 영의 사랑만을 인식할 뿐이다.” (“[Christianity] recognizes really only one kind of love, the spirit’s love.” (WL, 143=WLS, 116. cf. WL, 146=WLS, pp. 118f.)) 그리고 이 사랑은 신-인(the God-man)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졌다. 이것이 키에르케고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강한 주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키에르케고어 자신은 이 책이 “아주 강력한 논박”(the powerful polemic)이라고 생각한다(JP, V, 611(Pap. VIII 1 A 559)).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대로의 참된 사랑(또는 영적인 사랑)과 ‘세상적 사랑’(earthly love)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을 중간 언어로(as the middle term)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우리의 두 번째 논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묘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성들만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the fulfillment of Law)이다. 따라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the fulfilling of the Law)이다.<sup>16)</sup> (키에르

15) 특히 다음을 보라: WL, 44, 49-52, 56, 143=WLS, 37, 41-44(earthly love vs. Christian love), 47, 116(earthly love vs. spiritual love). 이 점에 대한 다른 학자의 좋은 논의로 Uterback (1975: 25, 242f., 256f., 260f.)을 보라. 이런 점에서 나는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적 사랑과 대조되는 인간적 사랑을 실제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폴 플러(Mueller (1993: 11))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심미적 사랑 이해와 윤리적 사랑 이해와 기독교적 사랑 이해의 차이에 대한 좋은 논의로 Hartshorne (1990: 56-61)도 보라.

16) WL, 99=WLS, 81. 또한 다음도 보라: JP, I, 295, 297, 944(Pap. II A 388, 473, VIII 2 B 34:7); JP, II, 1484, 1884, 1905(Pap. X 4 A 230, X 3 A 615, X 4 A 366). 이 점에 대한 좋은 논의로 Uterback (1975: 342, 351f.)도 보라.

케고어가 율법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sup>17)</sup> 키에르케고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때, 그는 아주 밀접히 관련된 두 가지 요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다. 즉, 율법에서 요구되어진 바가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나 이 용어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요점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궁극적 요구는 신적으로 이해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율법과 사랑 사이에는 전혀 갈등이 없다. 마치 총합과 그것의 각 부분들 사이의 갈등이 없는 것과 같이, 또한 총합을 찾으려는 이제까지의 헛된 노력과 이제 찾아진 행복한 발견, 그 행복한 결단 사이의 갈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WL, 105=WLS, 86)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전통적 루터파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성경적 사상가로서의 키에르케고어의 모습을 볼 수 있다.<sup>18)</sup> 그의 수기(手記)의 한 부분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골격, 근본적 구조, 물을 다 빼버린 골조이고, 사랑은 그 내용물, 충만이다.”(JP, III, 2403). 『기독교적 강화』(Christian Discourses)의 서론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율법이 복음과 관련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7) WL, 106=WLS, 87.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의미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설명의 하나로, Friemond (1965: 106)을 보라.

18) WL, 105f.=WLS, 87; JP, I, 435(Pap. II A 277).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이 시도하듯이 사랑의 역사의 제 1부를 율법에 대한 부분(이론, “당위”에 대한 부분)과 복음(실천, “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또 다른 학자로 페레이라(Ferreira) 교수의 논의를 보라. 그렇게 구분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그녀의 비판으로, Ferreira (2001: 101f.)을 보라.

(복음은) 천상적인 것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그것은 산자락에 있다. 그렇게 완화되고 진정시키는 것이 복음이다. 이 땅에 내려온 천상적인 것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상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더 천상적인 것이다.”(Chr. D, 9)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에게는 복음이 율법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게 있지만 율법과 복음 사이의 본질적 갈등이 없으니, 그 둘 모두가 같은 원천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고(WL, 105=WLS, 86), 율법이 이미 은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WL, 106=WLS, 87) 그리고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에 요구된 것의 총합으로서의 사랑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 것이다.

『사랑의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속적으로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순수 행동이다.”(WL, 98f.=WLS, 81f.)<sup>19)</sup> 그의 사랑은 항상 새롭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영원의 사랑으로 능동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WL, 100=WLS, 82) 이런 역동성은 그가 신적으로 이해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의 활동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의 무한성을 함의한다.(WL, 172=WLS, 139) 영속적으로 능동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랑의 행위가 무한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 번째 특성은 이 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니, “그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이 세 번째 특성은 그가 항상 능동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둘째 요점의 표현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사랑은 그 범위가 한이 없다. 키에르케고어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유일한 바람은 모든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his sole wish was that everyone would become his disciple)(WL, 100=WLS, 82)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특성을 지닌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말한다.:

19) 또한 다음도 보라: FSE, 11, 17, 18f., 21=FSEL, 37, 42, 43f., 46.

그는[그리스도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적 개념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기에 그의 생애 전체가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인간적 이해와 무섭게 충돌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실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와 함께 사랑에 대한 신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WL, 110=WLS, 90)

이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논의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행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기로 하자. 다음 몇 문단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 신적으로 이해된 사랑의 유일한 참된 표현으로서의 신인(神人, the God-man)의 존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신적인 사랑에 대해 반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sup>20)</sup>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사랑은 근본적으로 신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sup>21)</sup>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사랑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책임을 깊이 의식하게 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매우 분명히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앤드류 벌게스가 옳게 지적한 바와 같이, “변화되어, 우리도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시작하게 한다.”(Burgess, (1999: 42)).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 안에서 당신님의 사랑을 분명히 표현하셨다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어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으로서 사랑하도록

20) Cf. JP. I. 508(Pap. X4 A 624); JP III. 2407, 2442(Pap. VIII 1 A 89, X 5 A 50).

21) 다른 맥락에서도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같은 이해를 표현한 Philip S. Watson, "Translator's Preface," in one volume version of *Agape and Eros* (London: SPCK, 1953), ix, xii; 그리고 Gates (1963: 132)도 보라.

명령받은 것이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독교적 사랑의 자발성은, 알바우흐(Arbaugh and Arbaugh)가 잘 표현한 바와 같이, “신앙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솟아 나오는 것이다.”<sup>22)</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 사이에는 전혀 갈등이 없다. 왜냐하면, 왓슨(Watson)이 잘 관찰한 바와 같이,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항복으로 사람은 자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가 마음대로 하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며, 오직 그의 뜻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sup>23)</sup>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의무로 여겨진다. 여기서 의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 이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단계나 종교성 A에서 이해되는 합리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 도덕 판단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령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역사』(*Works of Love*)와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두려움과 떨림』에서는 기독교론적인 고려가 엮이는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신앙의 기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된다.<sup>24)</sup>

22) Arbaugh and Arbaugh, (1967: 261). 기독교적 사랑의 자발성과 그리스도의 사랑하라는 명령의 양존 가능성에 대한 좋은 논의로 Walsh (1988: 243-46)을 보라.

23) Watson, "Translator's Preface." to the one volume version of *Agape and Eros*, viii-ix. 또한 Gates (1963: 13f.)도 보라.

24)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랑의 역사』(*Works of Love*)와 『두려움과 떨림』(*Fear and Trembling*)의 관계에 대한 좋은 논의로 Bowen (1980: 25-32)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너는 사랑하라”고 하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무가 된다.(WL, 24=WLS, 20)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랑 받은 것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도록 명령 받은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서도 일어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WL, 24=WLS, 20-21)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 안에서 분명히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른 곳에서 키에르케고어는 빛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 점, 즉 기독교적 사랑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사랑이 무한한 빚짐(an infinite debt)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한다.<sup>25)</sup> 얼 듯 보기에 이는 좀 애매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키에르케고어가 이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진정한 의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빛이라는 말로써 키에르케고어는 그리스도의 사역 덕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얻은 것을 마땅히 갚아야 한다는 의미로 빛이라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sup>26)</sup>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구절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그러나 사랑은 아마도 무한한 빚(an infinite debt)이라는 말로 가장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으므로 사랑의 빛을 진디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도 빛을 지는 것이다..... 어떤 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나 그것을 줌으로써 우리는 무한한 빛을 지는 것이다.(WL, 176f.=WLS, 143)

25)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루터의 사랑의 신학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로 Hall (2002: 37-40, 281, n. 6)을 보라.

26) 이런 점에서 이 빚짐을 창조론적-존재론적 의미로 이해하는 Ferreira보다는 이를 구원론적 의미로 이해하는 홀(Amy Laura Hall)이 더 옳다고 여겨진다. Cf. Hall (2002: 190, 194, 216, n. 21).

이 구절에서, 키에르케고어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사랑 받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다 무한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사랑 받는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해 준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도 무한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사랑의 빛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그 무한한 빛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sup>27)</sup> 이와 같은 하나님께 무한히 빚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한히 빚지고 있다는 사상이 나온다.<sup>28)</sup>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키에르케고어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은 무한 한 빛을 지는 것이다”(“to love is to have incurred an infinite debt”)라고 주장하게 하는가를 물어야만 한다. (WL, 187=WLS, 152) 이 질문에 답하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음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강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그의 강조에서 말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슈무엘리(Shmueli)가 말하는 바와 같이,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그 빛을 다 같아 버리려고 할 때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한한 관여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Shmueli, 1977:

27) WL, 102f., 132.=WLS, 84f., 107f. 또한 다음도 보라: Chr. D. 299: “당신은 전적으로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만이 그 빛을 온전히 치루는 전적인 만족이다”(“You are totally in debt; he is totally the satisfaction.”)

28) 내가 보기에 Ferreira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음과 다른 이들에게 빚지고 있음을 연관시키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겨진다. Cf. Ferreira (2001: 120). 왜냐하면,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하나님께 빚짐이 없이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무한히 빚지고 있다는 의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78).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오직 한 가지를 두려워 하니, 그것은 자신이 그 사랑의 빛진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다.”(WL, 178=WLS, 145) 그러므로 사랑의 역사에는 휴식처가 있지 아니하다(Cf. WL, 178, 186f.=WLS, 145, 151) 키에르케고어는 그런 사랑의 빛진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위에서 제기 한 질문의 종국적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빛진 관계는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도 있게 된다. 이를테면, 누군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요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사랑하시는 이가 무한한 빛을 일으키신다. 그러나 사랑 받는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하나님은 자신도 무한한 빛을 지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제 사랑은 그 주인을 발견할 것이다.(WL, 189=WLS, 153)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묘사되며, 모든 사람은 그 사랑에서 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한 순간도 계산하느라고 낭비하지 않는다”(WL, 181).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을 “계산하고 재고하는 것은” 전혀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WL, 183f.).

그러나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제기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어는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제공한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말란축이 아주 옹계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의 능력과 그 이상의 차이는 여기서[사랑하라는 신적인 명령에서] 아주 커서 여기서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 진다”(Malantschuk, 1971: 362). 말하

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만 사랑하라는 신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을 뿐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 안에서 숨신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위한 자양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으며, 그는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WL, 244=WLS, 197) 이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다. 이와 관련해서 키에르케고어는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깊이 우러나오게 된다. 인간의 사랑은 신비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하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한다.(WL, 9f.=WLS, 8)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Christian love comes down from heaven to earth.”)(WL, 173) 그 사랑은 사랑의 기원이요 원천이신 성부에게서 나오고, 우리를 사랑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오고, 종국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은 것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사랑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삼중적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원천이시다.<sup>29)</sup>

이제쯤은 신적으로 이해된 사랑 또는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요, 동시에 이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부터 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받은 바를 다 이루지는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적 사랑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독교적 사랑은 한번에 영단변의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사랑하는 것으로 영단변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다.”(UDVS, 30). 오히려 사랑은 계속

29) WL, 216: “각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심으시는 분은 그 자신이 사랑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It] is God, the Creator, who must implant love in each human being, he who himself is Love.”)

되는 행위, 즉 순수 행위이다.<sup>30)</sup>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적 사랑은 순수 행동이다”(Christian love is sheer action)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다.(WL, 98ff. =WLS, 81ff.) 왜냐하면 기독교적 사랑은 “그저 시간을 보내면서 적당한 말만을 찾는 비활동성이거나 그 자체만을 만족시키려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WL, 99)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 옆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써 있는 불편하게 하는 주의문이 있으니, 그것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주의문이기” 때문이다.(WL, 46)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운 과제가 있는 것이다.”(WL, 188) 그렇기에 페레이라(Ferreira) 교수가 『사랑의 역사』에 대한 그녀의 책 제목에서 아주 요약적으로 잘 말하고 있듯이 “감사함에 가득한 사랑의 분투와 노력”(love's grateful striving)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의존할 수 없음을 함의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티모디 잭슨(Timothy P. Jackson)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키에르케고어가 그것을 옳다고 승인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자유는 모든 덕과 악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윤리-종교적인 존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에 의해서조차도 다른 방식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Jackson, 1998: 244).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은 옳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죄에 묶여 있다고 여긴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이로니칼 하게도) 사람은 스스로가 너무 강하여 참된 의미에서 사랑 할 수도 없고 사랑 받을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동시에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승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승리를 주께

30) 이 점에 대해서는 WL, 375f.=WLS, 293; WL, 100-102, 188=WLS, 81-83, 152f.; JP, I, 512(Pap. X 5 A 98)를 보라.

돌리는[afstaa]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긴 후에 계속해서 서[bestaa] 있을 수 있다.”(WL, 333=WLS, 269f.) 사랑은 항상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에서 키에르케고어는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경건한 사람의 최고의 자신이며 그의 참된 부이다.”(“this is the devout man’s greatest and his true riches, that he needs God”(WL, 11=WLS, 9)고 말하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은혜이다”라고도 말한다.(WL, 50) 그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하지 않으니,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느끼며,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한다.”<sup>31)</sup> 하나님 앞에서는 제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제 넘음(the presumptuousness)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Chr. D., 64)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의식하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적 사랑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을 이제까지 살펴보았다.<sup>32)</sup> 우리가 살펴

31) WL, 131=WLS, 107. 또한 WL, 217: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공로도 가지고 있지 않다.”(the one who loves has no merit at all.) 나는 이 주제를 『그리스도교의 훈련』에 나타난 제자도를 다루는 맥락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사랑의 역사』에서도 키에르케고어가 반(反)-천주교적이라는 좋은 논의로 Arbaugh and Arbaugh, 1967: 266ff.을 보라.

32) 이 점을 지적하는 또 다른 논의로 다른 논의를도 보라: Kirmmse, 1990: 312; Quinn, 1992: 354, 373; 그리고 Hall, 2002: esp., 9, 11. 나는 단지 Quinn이 어떻게 사랑의 요구를 수행하는 우리의 무능력과 관련하여 키에르케고어와 칸트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는 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Cf. Quinn (1992: 366, 373).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대조적으로 칸트적인 정언 명법은, 칸트 자신이 인정하듯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우리의 근본적 고약]을 극복하는 것은 가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행동이 자유스러운 사람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Kant, 1998: 32, 강조점은 필자가

본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논의의 서두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키에르케고어는 신적으로 이해된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하며, 이 신적인 사랑에 대한 인간의 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첫째 특성이다. 이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기독교적 사랑의 절대적 차이도 잘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차이는 기독교 사랑의 두 번째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더 분명해 질 것이다.

### III. 하나님을 중간 언어로 하는 사랑의 윤리

기독교적 사랑의 두 번째 특성, 즉 “하나님이 사랑의 중간 언어이다”(God is the middle term in one's love)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사랑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영적인 반응이라는 첫째 특성의 논리적 귀결이다.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적 사랑을 특징 짓기 위해서 “중간 언어”(the middle term)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sup>34)</sup> 예를 들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세상 지혜는 사랑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견해를 가진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은 ‘사람-하나님-사람’의 관계라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이 중간 언어(the middle term)인 것이다.(WL, pp.

불인 것임).

33) 이와 비슷한 견해로 Nygren, 1932: 69; Lindstroem, 1953: 28을 보라. 또한 다음도 보라: Steere, "Introduction," to Works of Love, x: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다.”(“[The] Christian ethic, according to Kierkegaard, involves the Grace of God and involves a life in active response to that Grace.”)

34) WL, 57-58, 67, 103, 107, 119, 121, 142, 303, 395, 437-39, 450.

106f.=WLS, 87, Kierkegaard 자신의 강조점)

이 문장의 풍성한 의미는 이 논문의 한계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중간 언어이다”는 구절의 의미를 기독교적 사랑의 세 가지 연관된 요소들과 관련해서 조금만 드러내어 보려고 한다. 그 세 가지 요소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중간 언어이다”는 말의 뜻은 사랑 전체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게 이해된)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세 요소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고 여겨진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행위에서 결코 떼어 낼 수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한 사랑의 세 가지 측면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의 중간 언어이다”는 말의 의미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전체로서의 기독교적 사랑의 기원으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하자. 기독교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sup>35)</sup> 이런 뜻에서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은 모든 사랑-관계에서 제 삼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사실상 유일하게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받으실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은밀한 자기 사랑”이다.(WL, 19)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의 중간 언어이다”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키에르

35) WL, 19, 121-22. 264=WLS, 17, 99-100, 214. 또한 JP, VI, 6615(Pap. X 3 A 68)도 보라. 이 점을 분명히 말하는 키에르케고어 학자는 Utterback 뿐이다(1975: 252)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나는 살비아 월쉬 교수와 같은 견해를 가진다.

케고어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사랑의 관계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으로 발견하려고 한다. 이교에 반하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사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한다(JP, II, 1446, 147). 이와 같이 키에르케고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영적인 사랑의 기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의 시금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는 ‘하나님-관계’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몇몇 곳에서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관계’를 그 말의 모든 의미에서 최고선(*summum bonum*)이라고 말한다.<sup>36)</sup> ‘최고선’(*summum bonum*)이라는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의 시금석으로서의 ‘하나님 관계’ 이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하나님-관계’는 사랑의 기준으로, 따라서 기독교적 윤리와 삶의 기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와 세상의 다른 윤리 사이의 절대적 차이를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윤리에서와는 아주 다르게도 윤리의 기준이 ‘하나님-관계’이다.<sup>37)</sup> “이교도와 자연인은 단지 인간 자아를” 그 기준으로 가지는 데 반해서(SUD, 81), 키에르케고어의 그리스도인은 신적인 기준(*the divine standard*)을 가지는 것이다.

36) WLS, 42f., 190. 또한 Chr. D. 200도 보라. 또 다른 맥락에서 키에르케고어는 “복됨” (Blessedness, *Salighed*)을 최고선(the highest good)이라고 한다.(Chr. D. 222).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키에르케고어는 복됨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최고선의 근원(the origin of the *summum bonum*)이시다. 그는 영원히 복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됨도 역시 최고선이다.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는 최고선의 “최고”(*summum*)가 ‘최고의 것’(*supremum*)인지 ‘가장 완전한 것’(the perfect, *consummatum*)인지의 여부는 칸트에게서와는 달리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칸트의 구별에 대해서는 Kant (1959: 114)을 보라. 키에르케고어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 또는 완전하시므로 최선의 분이시기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37) 이 점에 대한 같은 이해와 지적으로 다음을 보라: Nordentoft, 1978: 331; 그리고 Hannay, 1983: 271.

‘하나님-관계’가 기독교적인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는 자신의 삶의 매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면전에 있음을 의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sup>38)</sup>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WLS, 294=WL, 365, cf. JP, III, 2407(Pap, VIII 1 A 89)) 그러므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하는 고려도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It] is God who in every case will determine what is love.”)<sup>39)</sup> 이와 같이 ‘하나님-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한 의식이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관계’가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절대성을 함의하기도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다 성취하거나 그에 다 이르렀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항상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sup>40)</sup>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작은 존재로”(less than nothing) 만드는 것이다.(JP, VI, 6823(Pap, X 4 A 663))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어서 그것은 우리들의 상대적 차이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sup>41)</sup> 그런데 “단지 인간적 이해는 이것을 아주 이상하다고 여긴다.”(JP,

38) WL, 382f.=WLS, 308. 또한 다음을 보라: JP, II, 1785(Pap, X 3 A 268); JP, III, 3377(Pap, II A 377); Chr. D., 64.

39) WL, 126=WLS, 103, 강조점은 필자가 붙인 것임. 같은 점에 대한 강조로 다음도 보라: Heineken, 1956: 123, 238; 그리고 Ferreira, 2001: 71f.

40) WL, 103=WLS, 84; JP, V, 6125((Pap, VIII 1 A 602), 6135(Pap, VIII 1 A 650).

41) Cf. JP, II, 1381(Pap, IX A 476)= *Journals*, No. 854; JP, I, 514, 515(Pap, X 2 A 420, 421); JP, II, 1216, 1353(Pap, VIII 1 A 675, VIII 1



I, 515(Pap. X 2 A 421), 1850)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하나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기독교적 사랑의 두 번째 요소인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다른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한다.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이들에게도 항상 적극적으로 표현된다.<sup>42)</sup>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람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다 표현해 내지는<sup>43)</sup>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온 영혼과 정신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은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WL, pp. 19f.=WLS, 17)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만 한다.<sup>44)</sup>

여기서 키에르케고어와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생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받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 갈 수 있다.”(Levinas, 1984: 59). 레비나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흔적들”(the “traces of God”)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이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의 나타남이 있

Λ 63); JP, VI 6731(Pap. X 4 A 53). 또한 Dupré, 1963: 163도 보라.

42) WL, 57, 190=WLS, 48, 154; JP, III, 2434, 2479(Pap. X 3 A 739, X 1 A 17).

43) 그렇게 시사하는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칸트를 언급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보편적 종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의무들은 없다.”(“There are no special duties to God in a universal religion.” Kant, 1998: 142, note). 후에 논의될 레비나스(Levinas)의 생각도 유사하다.

44) 비슷한 지적으로 Outka, 1972: 52, 193; Elrod, 1981: 183; 그리고 Gates, 1961: 75 등을 보라.

다”(Levinas [1969: 78f.]).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이웃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만 중재되는 것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니다.<sup>45)</sup> 만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차이에 차별이 없다면,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웃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Cf. WL, 108, 125)

이 점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다양한 상화 drkdnsep서의 건덕적 강화들』 (*Upbuilding Discourses in Various Spirits*)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옳고 바른 일들을 하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과연 의를 행하는 것일까? 이와 같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마치 도적이 자신이 훔친 돈을 가지고 옳고 바른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닌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실존 전체를 다 훔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UDVS, 211)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이상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하나

---

45) 내가 보기에 페레이라(Ferreira)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았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녀는 이점을 잘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Cf. Ferreira (2001: 80f., 163f.). 키에르케고어와 레비나스가 (1) 편견 없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에서와 (2) 사랑해야한다는 의무의 무한성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해를 지닌다. Cf. Ferreira (2001: 124). 그러나 키에르케고어와 레비나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페레이라는 이 차이를 잘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최우선을 가지셔야만 한다고 가르친다.”(WL, 149=WLS, 121, cf. JP, III, 2428(Pap. X2 A 63))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련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그저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sup>46)</sup> 그것은 “사람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라”는 칸트적인 정언 명법(Kant [1947: 96])과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려면 키에르케고어의 이웃 개념을 조금 더 잘 살펴보아야 한다.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중간 언어로 계시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참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원천이라는 말이다.(WL, 160=WLS, 130)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이웃도 없다. “하나님과 함께라야만 우리는 이웃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간 언어(the middle term)이시기 때문이다.”(WL, 77=WLS, 64)<sup>47)</sup>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는 칸트의 직접적 추종자로 여겨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한스 프리몬드에게는(Friemond, 1965: 33-35, esp., 35) 안 된 말이

46) Cf. Nygren, 1932: I, 68; and Elrod, 1981: 125f.

47) 비슷한 견해로 Hannay, 1983: 270; Zeigler, 1960: 92. 그리고 Oppenheim, 1999: 262를 보라. 오펜하임이 잘 밝혀주고 있는 바와 같이 (261f.), 이집에서 키에르케고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마르틴 부버와는 상당히 다르다: “어떤 이가 [세상과 관련하여] 이 상태에 견고히 거함을 얻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으로 나아 갈 수 있게 된다.”(Buber, 1995: 125) 부버는 또 이렇게 말한다: “모든 너를 통해서 근본적인 말씀이 영원한 당신님께 언급되는 것이다.”(Buber, [1995: 123]) 부버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키에르케고어를 “세상을 바라보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비우주적이 된 자기에게 관련하는 개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반인간적인 사람이 된 사람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그를 비판하는 것이다.(*Between Man and Man*, 213) 부버는 이웃을 발견할 때에도 조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키에르케고어의 깊은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 키에르케고어는 칸트에게 감추어진 빛이 있다고 여기는 로날드 그린(Ronald M. Green)에게도 안 되었고(Green, 1992: 222), 키에르케고어의 윤리-종교성을 칸트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는 에드워드 무니(Edward F. Mooney)에게도 안 되었지만,<sup>48)</sup> 칸트적인 정언 명법에서 온 윤리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기독교적 윤리 사이에 아주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49)</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에는 그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everyone is the neighbor*, WL, 44,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강조점).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키에르케고어가 이웃은 “당신이 만나게 되는 첫 사람이다”(the very first person you meet, WL, 51)고 말할 때, 또는 “이웃은 첫 번째 당신이다”(the neighbor is the *first you*, WL, 57, 키에르케고어 자신의 강조점).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만 영원의 평등성이 보존된다”(only when one loves the neighbor the equality of the eternal preserved.”(WL, 44, Kierkegaard's own emphasis)고 말할 때 우리는 키에르케고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sup>50)</sup> 왜냐하면 “이웃은 평등한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WL, 60)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다.”(WL, 84) 왜냐하면 “[평등성이란] 단순히 구별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

48) Mooney (1996: 46, 47f.); 그리고 Mooney (1991: 94, 124f.).

49) 폴 마르텐스(Paul Martens)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키에르케고어의 이해가 칸트와는 아주 다르다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다(Martens, 1999: 57-78). 칸트와 키에르케고어 관계에 대한 매키(Mackey)와 무니(Mooney)의 이해와 이런 견해를 대조시켜 보라.

50) Cf. Nicoletti, 1992: 187: “키에르케고어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평등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 평등성이란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구별도 하지 않는 것이며, 절대적으로 조금의 구별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WL, 58)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사랑한다.”(WL, 69)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보고 관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사랑은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WL, 154-74) 즉, 우리는 있는 대로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페레이라(M. Jamie Ferreira)의 말은 아주 옳은 것이다.

맹목성 또는 ‘눈을 감은 채로’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요구가 공식적으로 범주를 분명히 하는 특정한 문맥이라는 전략적 위치에서 그리고 이 명령의 무조건성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만 바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논의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 명령의 대상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다름과 차이에 대해 눈을 감으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맹목성은 그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Ferreira, 2001: 55)

우리는 구별과 차이에 대해 무관심해야만 한다는 논의가 자만하려고 하거나 시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청중들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WL, 70,74, 80). 그런 청중을 전제로 할 때에 물질적 차이에 대한 무관심해야만 한다는 권면이 주어지는 것은 그가 타체성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비난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다(Ferreira, 2001: 61).

그러므로 키에르케고어는 지상적인 삶의 차이나 다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차이와 다름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중 그 누구도 순수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WL, 70) 이 세상의 차이를 잘 안다. 사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우리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 차별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고

집스럽게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한 후에 키에르케고어는 “그러나 이웃됨으로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으로 모두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WL, 89)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페레이라(Ferreira)의 말은 아주 정확한 것이다: “여기서 키에르케고어는 이웃이라는 범주를 다른 이들의 타자성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된 범주로 선언하는 것이다. 사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들을 우리의 연장 이상의 존재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Ferreira, 2001: 43).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WL, 60) 하나님이 없이는 보존되어야 하는 타자성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키에르케고어에게는 ‘하나님 면전’(coram deo)이란 곧 ‘그리스도 앞에서’(coram Christo)이다.<sup>51)</sup>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키에르케고어의 말을 이해해야만 한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살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 사랑이 없이는 당신은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to love people is the only thing worth living for, and without this love you are not really living, WL, 375)

이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우리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실재하는 사람에게 투사해낸 상상적인 형태의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실제 현존하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sup>52)</sup>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이는 다음과 같이 묘사 될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독특성에 따라 사랑한다..... 그는

51)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강화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 그의 이름이 불려 지는 곳마다 그가 계시는 것이다.” (Chr. D., 225).

52) Cf. WL, 164=WLS, 133.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는 주제에 대한 좋은 논의로 Ferreira (2001: 109f.)를 보라.

다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WL, 269=WLS, 218, Kierkegaard 자신의 강조) 그러므로 참된 사랑에서는 사랑 받는 사람이 잘못이나 연약성이나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이다.”(WL, 166=WLS, 135) 그렇기에 우리는 떼오도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가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교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마치 그들이 죽은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죽음과 비슷한 측면”이라고 말할 때(Adorno, 1939: 413-29, esp., 417), 그에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은 온갖 종류의 불완전성을 지닌 실존하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이웃은 아도르노가 키에르케고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바와 같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킬리(Louise Carroll Keeley)가 잘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키에르케고어의 본문 가운데서 ‘이웃’이란 일관성 있게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다.”<sup>53)</sup>

기독교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바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WL, 264=WLS, 214) 다른 곳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도 말한다.:

사랑의 관계는 세 가지를 요구한다. 즉, 사랑하는 이와 사랑 받는 이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돕는 것이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sup>54)</sup>

53) Keeley (1999: 215). 아도르노의 견해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 논의로 Ferreira (2001: 55-62, 67, 188f., 209-13)도 보라.

54) WL, 121=WLS, 99. 또한 다음도 보라: WL, 107, 114, 130.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사랑의 궁극적 표현이다.<sup>55)</sup> 그래서 키에르케고어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유일한 목적으로 지니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준다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에 머무를 것이다."(WL, 113=WLS, 92f.)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키에르케고어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요점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 된다.(WL, 107, 120) 누군가가 그 자신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sup>56)</sup>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야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께서만이 존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능성을 계속해서 끌어내심으로 무로부터 그 자체 안에 계속성을 지니고 있는 무엇인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sup>57)</sup>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스스로 설수 있는 것이다."(WL, 278) 그러므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제 키에르케고어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한 기독교적 사랑의 표현만이 참된 사랑이다.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한이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만 의존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여 자신이 되도록 하는 참된 사랑이다. 키에르케고어에게는 "다른 모든 사랑은 사라질 수 있으며, 단지 한 때 꽃 피울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랑은 영원하다."(WL, 8=WLS, 7)

55) 이 개념에 대한 왜곡과 비판으로 Loegstrup, 1997: 218-64, esp., 220, 223f., 226f., 232를 보라. 이와 같은 뢰스트럽의 해석에 대한 좋은 논의와 반박으로는 Ferreira (2001: 76-83)을 보라.

56) Cf. WL, 271, 274, 275, 277f.

57) JP, II, 1251, pp. 62-63, cited in Ferreira, 2001: 156.



그렇다면 이런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 질문으로 우리는 기독교적 사랑의 세 번째 요소, 즉 “자신에 대한 참된 사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 참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사랑의 참된 표현은 자기-부인 또는 자기-희생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논의에서 바로 그렇게 말한 바 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어는 “참된 사랑은 자기-부인적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58)</sup> 그러므로 니그렌과 같은 사람이 기독교적 사랑은 “자애(self-love)의 여지를 지니고 있지 않다. 기독교는 자애를 기독교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아가페는 정당화될 수 있는 자애와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59)</sup> 그러나 키에르케고어는 참된 의미의 자신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Cf. JP, III, 3771(Pap. X 5 A 53))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사랑이 있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그것이 거부되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자기 사랑과 사랑할 때 표현될 수 있는 자기 사랑이 있는 것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sup>60)</sup> “바른 자기 사랑”(proper self-love, WL, 18),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loving] oneself truly, WL, 107), 자신을 “바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loving oneself “in the right way”, WL, 22, 23), 또는 진 오투카(Gene Outka)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바르고 정당화될 수 있으며 참

58) WL, 369=WLS, 297. 또한 다음도 보라: WL, pp. 265, 268; JP, III, 2410(Pap. VIII 1 A 196); JP, III, 3779(Pap. XI 1 A 376).

59) Nygren, 1932: I, 170. 또한 같은 책, 71f.도 보라. 또한 Martin Luther (1972: 513)도 보라. 그러나 루터는 자신에 대해 돌아보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의 다음 글들을 보라: “Treatise on Good Works”(1515-16), in Luther, 1966: 15-144, esp., 108; and *Lectures on Galatians*(1535), in Luther, 1964: 57).

60) JP, III, 2414(Pap. VIII 1 A 521). 또한 다음도 보라: WL, 22f.=WLS, 19, et passim; Chr. D, 79; JP, III, 2399(Pap. IV B 147); JP, V, 6091(Letters, no. 167); JP, VI, 6280(Pap. IX A 500).

된 자기-사랑”(a proper or justified or true self-love)이다.<sup>61)</sup>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또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순전히 신중심적인 형태로, 이기적인 상태에서 참된 형태로 변혁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린드스트롬이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변혁된 신중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지닌 사람에 대해 본질적인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애라는 말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sup>62)</sup> 키에르케고어에 의하면, 사랑의 행위에서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참되고 긍정적인 사랑은 자기-부인, 또는 자기-희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에이미 로라 홀(Amy Laura Hall)이 옳게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이웃’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이기적 주제넘음을 중지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독특한 실재인 타자를 인정하도록 하기 때문이다.”<sup>63)</sup>

---

61) Outka, 1972: 23. 그 외에도 『사랑의 역사』 안에 두 종류의 자기-사랑이 언급되고 있음을 말하는 다음 글들을 보라: Lindstroem, 1953: 3-6. 그리고 Elrod, 1981: 128-32) 린드스트롬은 엠마누엘 히르쉬도 비슷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인용하기도 한다. Cf. Emanuel Hirsch, Kierkegaard-Studien (1933), 869f, n. 4. 이들 외에도 참된 자기-사랑이 있음을 말하는 다음 저자들의 글도 보라: Sponheim, 1975: 144; Nordentoft, 1978: 368; Friemond, 1965: 10; Utterback, 1975: 214, 247ff.; Hartshorne, 49; 그리고 Ferreira, 2001: 30-35, 134, 167, 271, n. 4, 256, 258, 25). 그러나 Ferreira는 키에르케고어에게 정당한 자기-사랑이 있음을 잘 논의한 후에 아주 이상스럽게도 이것을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퀴나스와 연관시킨다(Ferreira, 2001: 33). 내가 보기에는 키에르케고어 자신은 이런 연관성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듯하다.

62) Lindstroem, 1953: 4. 또한 같은 글, 8도 보라.

63) Hall, 2002: 176.

####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적 사랑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적 사랑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사실 기독교적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시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중간 언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성을 드러내어 주고,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관성을 보여 주며,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과 관련한 참된 자기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은 기독교적 사랑의 중간 언어이다”는 표현으로 잘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윤리는 그의 기독교적 신앙에 굳건히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사랑의 윤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만 실천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이 사랑의 표현은 항상 하나님을 중간 언어로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적 원천이요, ‘이웃 사랑’은 이 사랑의 외적 표현이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사랑’은 이 사랑의 내적인 표현인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랑의 윤리가 사회적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는 일이 추후 탐구의 과제로 남았다.

#### 참고 문헌

- Adorno, T. W. (1939), "On Kierkegaard's Doctrine of Love," *Studies in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8 : 413-29.

- Andic, Martin (1999), "Love's Redoubling and the Eternal Like for Like,"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Arbaugh, George E. and G. B. Arbaugh (1967), *Kierkegaard's Authorship. A Guide to Writings of Kierkegaard*, Rock Island, Illinois: Augustana College Library.
- Barrett, Lee C., III. (1999), "The Neighbor's Material and Social Well-Being in Kierkegaard's *Works of Love*: Does It Matter?,"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Bonifazi, Conrad (1950), *Christendom Attacked. A Comparison of Kierkegaard and Nietzsche*, London: Rockliff.
- Bowen, Gary Starr (1980), "Kierkegaard on the Theological Ethics of Love," *The Duke Divinity School Review* 43: 25-32
- Buber, Martin (1995), *I and Thou*,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Burgess, Andrew J. (1999), "Kierkegaard's Concept of Redoubling and Luther's *Simul Justus*,"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Colette, Jacques (1968), *Kierkegaard: The Difficulty of Being Christian*, trans. Ralph M. McNerny and Leo Turcotte, Notre Dame and Londo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Croxall, T. H. (1956), *Kierkegaard Commentary*, London: James Nisbet.
- Deyton, C. Edward (1986), *Speaking of Love: Kierkegaard's Plan for Faith*, Lanham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Dupré, Louis (1963), *Kierkegaard as Theologian. The Dialectic of Christian Existence*, New York and London: Sheed and Ward.
- Elrod, John W. (1981), *Kierkegaard and Christendo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rreira, M. Jamie (1999), "Mutual Responsiveness in Relation: The

- Challenge of the Ninth Deliberation."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193-209,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Love's Grateful Striving: A Commentary on Kierkegaard's Works of Lo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mond, Hans (1965), *Existenz in Liebe nach Søren Kierkegaard*, Muenchen and Salzburg: Verlag Anto Pustet.
- Gates, John A. (1961), *The Life and Thought of Kierkegaard for Everyman*,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_\_\_\_\_ (1963), *Christendom Revisited: A Kierkegaardian View of the Church Toda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George, Peter (1998), "Something Anti-Social about Works of Love," in *Kierkegaard: The Self in Society*: 70-81, eds. George Pattison and Steven Shakespeare, London: Macmillan, 1998.
- Green, Ronald M. and Theresa M. Ellis (1999), "Erotic Love in Religious Existence-Sphere,"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Green, Ronald M. (1992), *Kierkegaard and Kant: The Hidden Deb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ll, Amy Laura (2002), *Kierkegaard and the Treachery of Lo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nay, Alastair (1983), *Kierkegaard*,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Hartshorne, M. Holmes (1990), *Kierkegaard Godly Deceiver: The Nature and Meaning of His Pseudonymous Writing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eineken, Martin V. (1956), *The Moment before God*,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 Henriksen, Jan-Olav (2001), *The Reconstruction of Religion: Lessing, Kierkegaard, and Nietzsche*, Grand Rapids: Eerdmans.
- Jackson, Timothy P. (1998), "Arminian Edification: Kierkegaard on Grace and Free Will,"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Kierkegaard*,

- Alastair Hannay and Gordon D. Marino,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t, Immanuel (1947),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trans. H. J. Paton, *The Moral Law*, London: Hutchinson.
- \_\_\_\_\_ (1959),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rans. Lewis White Beck, Indianapolis: Bobbs-Merrill.
- \_\_\_\_\_ (1998),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 trans. and ed. A. Wood and F. Di Giovann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eley, Louise Carroll (1992), "Subjectivity and World in *Works of Love*," in *Foundations of Kierkegaard's Vision of Community: Religion, Ethics and Politics in Kierkegaard*, eds. George Connell and C. Stephen Evans, New Jersey and London: Humanities Press.
- \_\_\_\_\_ (1999), "Loving 'No One.' Loving Everybody: The Works of Love in Recollecting One Dead in Kierkegaard's *Works of Love*,"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Kierkegaard, Søren(1944), *Training in Christianity*, trans. Walter Lowri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65), *The Last Years*, trans. Ronald Gregor Smith, New York: Harper and Row.
- \_\_\_\_\_ (1967-78), *Søren Kierkegaard's Journals and Papers*, 7 vols, edited and translated by H. V. Hong and Edna H. Hong, London an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 (1968), *For Self-Examination and Judge for Yourselves!* trans. Walter Lowri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Practice in Christianity*,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Works of Love*,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rmmse, Bruce H. (1990), *Kierkegaard in Golden Age Denmark*,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Levinas, Emmanuel (1969),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_\_\_\_\_ (1984), "Ethics of the Infinite," in *Dialogues with Contemporary Continental Thinkers*, ed. Richard Kearne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Lindstroem, Valter (1953), "A Contribu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ks of Love*." *Studia Theologia* VI. (1953): 1-29.
- Loegstrup, Knud Ejler (1997), "Settling Accounts with Kierkegaard's Works of Love," in *The Ethical Demand: 218-64*, ed. Hans Fink and Alasdair MacIntyre, Notre Dame, Ind.,: Notre Dame University Press.
- Lønning, Per (1978), "Kierkegaard as a Christian Thinker," in *Kierkegaard's View of Christianity*, edited by Niels Thulstrup and Maria M. Thulstrup, *Kierkegaard's View of Christianity*, Copenhagen: C. A. Reitzels.
- Luther, Martin (1964). *Lectures on Galatians*, in *Luther's Works*, vol. 27, ed. Jaroslav Pelikan,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 \_\_\_\_\_ (1966), "Treatise on Good Works," in *Luther's Works*, vol. 44, ed. James Atkinson,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6.
- \_\_\_\_\_ (1972), *Lectures on Romans*, in *Luther's Works*, vol. 25, ed. Hilton C. Oswald.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 Mackey, Louis (1986), "The Loss of the World in Kierkegaard's Ethics," in *Points of View: Readings of Kierkegaard: 141-59*, Tallahassee: Florida State University Press.
- Mackintosh, Hugh Ross (1936). *Types of Modern Theology*. London: Nisbet.
- Malantschuk, Gregor (1971). *Kierkegaard's Thought*,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Martens, Paul (1999), "'You Shall Love': Kant, Kierkegaard, and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22:39,"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57-78*,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Mooney, Edward F.(1991). *Knights of Faith and Resignation: Reading Kierkegaard's Fear and Trembling*,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_\_\_\_\_(1996), *Selves in Discord and Resolve: Kierkegaard's Moral-Religious Psychology From Either/Or to Sickness Unto Death*,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Mueller, Paul (1993), *Kierkegaard's 'Works of Love': Christian Ethics and the Maieutic Ideal*, trans. and ed. by C. Stephen Evans and Jan Evans, Copenhagen: C. A. Reitzel.
- Mullen, John Douglas (1981), *Kierkegaard's Philosophy: Self-Deception and Cowardice in the Present Ag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Mentor Books.
- Nicoletti, Michele (1992), "Politics and Religion in Kierkegaard's Thought: Secularization and the Martyr," in *Foundations of Kierkegaard's Vision of Community*, eds. George Connell and C. Stephen Evans, New Jersey and London: Humanities Press.
- Nordentoft, Kresten (1978), *Kierkegaard's Psychology*, trans. B. Kirmmse,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Nygren, Anders (1932), *Agape and Eros: A Study of the Christian Idea of Love*, part 1, trans. A. G. Herbert, London: SPCK, 1932.
- Oppenheim, Michael (1999), "Four Narratives on the Interhuman: Kierkegaard, Buber, Rosenberg, and Levinas," in *International Kierkegaard Commentary*, vol. 16: *Works of Love*, edited by Robert L. Perkins,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1999.
- Outka, Gene (1972), *Agape. An Ethical Analysi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Plekon, Michael Paul (1977), "Kierkegaard: Diagnosis and Disease: An Excavation in Modern Consciousnes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n Sociology, Rutgers University.
- \_\_\_\_\_(1992), "Kierkegaard the Theologian: The Roots of His Theology in *Works of Love*," in *Foundations of Kierkegaard's Vision of Community: Religion, Ethics and Politics in Kierkegaard*, edited by George Connell and C. Stephen Evans, New Jersey and London: Humanities Press.



- Quinn, Philip L. (1998), "Kierkegaard's Christian Ethic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Kierkegaard*, eds. Alastair Hannay and Gordon D. Marin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The Primacy of God's Will in Christian Ethics," in *Christian Theism and Moral Philosophy*, edited by Michael Beatty, Carlton Fisher and Mark Nelson, Macon, Georgia: Mercer University Press.
- Ricoeur, Paul (1992),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 Harvey Albert (1965), *Kierkegaard's Pilgrimage of Man: The Road of Self-Positing and Self-Abdication*, Delft: W. D. Menema, N V; Grand Rapids: Eerdmans, 1965.
- Søe, N. H. (1962), "Kierkegaard's Doctrine of the Paradox," in *A Kierkegaard Critique*, eds. Howard A. Johnson and Niels Thulstrup,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Sponheim, Paul Ronald (1975), *Kierkegaard on Christ and Christian Coherence*, New York: Greenwood Press.
- Stendahl, Brita K. (1976), *Soren Kierkegaard*, Boston: Twayne Publishers.
- Thomte, Reidar (1948), *Kierkegaard's Philosophy of Relig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tterback, Sylvia Walsh (1975), "Kierkegaard's Dialectic of Christian Existence." Ph. D. Diss., Emory University.
- \_\_\_\_\_ (1988), "Forming the Heart: The Role of Love In Kierkegaard's Thought," in *The Grammar of the Heart*: 243-46, edited by Richard H. Bell, New York: Harper and Row.
- Walker, Jeremy Desmond Bromhead (1972), *To Will One Thing, Reflections on Kierkegaard's "Purity of Heart."* Montreal and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Watkin, Julia (1997), *Kierkegaard*, London: Geoffrey Chapman.
- Westphal, Merold. "The Transparent Shadow: Kierkegaard and Levinas in Dialogue." In *Kierkegaard in Post/Modernity*
- Zeigler, Leslie (1960), "Personal Existence: A Study of Buber and Kierkegaard." *Journal of Religion* 40: 80-94.

## Abstract

#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Love: -With Special Reference to Kierkegaard's Works of Love

Seung-Goo Lee\*

In this paper I show that Christian ethics understood by Kierkegaard as the ethics of Christian love in Works of Love is based on his Christian faith. This implies the following two things. Firstly, Christian ethics of love is a response to the Christian God's love. Kierkegaard sees love in its true sense as the love of God which is conclusively expressed in the Christ event, and as a human response to this divine love, which is possible only in relation to God the Spirit. Secondly, Christian love always has this God as its middle term; Christian love is one's relationship with others as one relates to God. Hence, "love to God" is the fundamental source of love, and "love to one's neighbour" is the outer expression of love, and the "love to oneself" is the inward expression of love.

In the course of this discussion, a clear contrast is made between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love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erson in the ethical sphe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hristian and the natural man have the same understanding of ethics, and that

---

\*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Kukje Theological Seminary

Christian love is merely the identification of the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one man and another. For their conceptions of love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Kierkegaard shows us in Works of Love that the Christian sees the ethical aspect of human lif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ose of the ethical person and the person in religiousness A.

**Key Words:** love, Agape, Works of Love, God as the middle term, ethics of love, neighbour, Kierkegaard, Levinas